

고전소설 속 일상생활의 양상과 서술 효과

정선희*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고전소설 속 일상생활의 양상
3. 고전소설 속 일상생활 서술의 효과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소설을 통해 선인들의 생활문화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먼저 일상생활에 대해 고찰하였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문화를 총체적으로 일컬어 생활문화라 할 수 있는데, 사회구성원들이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행동 양식 내지는 생활양식과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정신적 소산을 이른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통해 당대인들의 생활문화를 알아본다는 것은, 선인들이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습득하고 공유하고 후세에 전달한 것들을 재구하는 일을 뜻한다. 이는 인류학이나 민속학, 역사학에서 재구하는 선인들의 삶과 일정 부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다를 때에는 문학적으로 가공되었기에 굴절되거나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가공한 것이기에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공에는 당대인들의 소망과 욕망, 의식과 무의식,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일상생활이라 하면, 일과(日課), 노동, 가족 관계, 독서, 취미, 의식주 등을 이르는데, 이를 통해 삶의 양태, 진솔함을 엿볼 수 있다. 고전소설 중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비교적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판소리계 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설에서는 서민이나 하층민의 삶이,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상층의 삶이 주가 되었다. 그 외에도 전기소설, 한문장편소설, 애정소설 등에서도 추출되는데, 작품의 길이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다. 단편소설들은 주로 굵직한 사건 위주의 빠른 진행을 보이기에 일상생활을 세세히 조명하기보다는 열거에 그친 반면, 장편소설들은 사소한 사건들도 인물의 구체적 행위나 묘사를 동반하여 길게 서술하기에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명했다.

고전소설에서 서술하는 일상생활은 독자들에게 퍽진한 현실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작품 속 인물들과 감성을 공유하면서 더 크게 공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인물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보고 배우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 감화되게 한다. 나아가, 이를 읽는 현대의 독자들도 고전소설을 통해 선인들의 삶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적 가치관과 정체성, 선인들의 생각과 말과 글, 인간관계 등을 알려주어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숙고하게 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문학과 삶의 긴밀한 연관, 작자와 독자의 은밀한 교감과 소통 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와 감성을 느끼게도 되는 것이다.

□ 생활문화, 일상, 일상생활, 고전소설, 일과, 노동, 독서, 교육, 의식주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고전소설을 통해 선인들의 생활문화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먼저 일상생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문화를 총체적으로 일컬어 ‘생활문화’라 할 수 있는데, 사회구성원들이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행동 양식 내지는 생활양식과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정신적 소산을 이른다. ‘생활양식’이라는 말이 어떤 사회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특유의 행동 양식 및 사고방식을 이르는 것에

비교할 때,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습득, 공유, 전달’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통해 당대인들의 생활문화를 알아본다는 것은, 선인들이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습득하고 공유하고 후세에 전달한 것들을 재구하는 일을 뜻한다. 이는 인류학이나 민속학, 역사학에서 재구하는 선인들의 삶과 일정 부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다를 때에는 문학적으로 가공되었기에 굴절되거나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가공한 것이기에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공에는 당대인들의 소망과 욕망, 의식과 무의식,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저서들에서는 생활문화라 하여 가족생활문화, 의생활문화, 주거생활문화, 소비생활문화, 여가생활문화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거나¹⁾, 생활사라고 하여 출생, 성장과 사망, 부부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 풍속 등을 고찰하였다.²⁾ 필자도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여성과 관련된 생활문화만을 추출하여 그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한 바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옛 여성들의 일상적 의무와 의식주 생활, 가족 내 인간관계, 놀이와 여가 생활에 대해 논하였다.³⁾ 이제,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고전소설 전반으로 넓히고 ‘생활문화’라는 큰 범주를 염두에 두면서, 먼저 일상생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⁴⁾

일상·일상생활이라 하면, 일과(日課), 노동, 가족 관계, 독서, 취미, 의식주 등을 이르는데⁵⁾, 이를 통해 삶의 양태, 진솔함을 엿볼 수 있다. 고전

1) 박명희, 『한국의 생활문화』, 교문사, 2003.

2)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

3)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22, 2010.

4) 추후에는 혼례·상례·제례 등의 의례, 삶의 방식과 처세관, 여가 생활과 취미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소설 중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비교적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서민이나 하층민의 삶이,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상층의 삶이 주가 된다.⁶⁾ 그 외에도 전기소설, 한문장편 소설, 애정소설, 영웅소설 등에서도 추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의 양상을 살핀 뒤에는 그 서술들이 소설 속에서, 또는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
- 5) 사전들에 의하면,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일상생활'은 평상시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단어를 구별하여 쓸 필요가 없을 듯하지만, 보통 때의 생활 모습을 본다는 의미에서 '일상생활'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도록 한다. '일상생활'이라는 말에 더 많은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 정도의 항목을 추출하여 고찰한다면 당대인들의 그것을 알기에 충분할 듯하다.

다만, 가족관계는 인물 간의 관계, 갈등과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곤 했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필자의 기존 논의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2010;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 『고소설연구』 32, 2011;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폄양상과 고부상(姑婦像)』, 『문학치료연구』 36, 2015;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주/군주 형상화와 그 의미 - 부부관계 속 여성의 감정과 반응 양상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2015;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과 현대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33, 2016.

- 6)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일상은 정충권(『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일상성』, 『국문학연구』 14, 2006)이,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의 일상은 이지영(『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3, 2005), 한길연(『대하소설의 '일상서사'의 미학-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국문학연구』 14, 2006)이 고찰한 바 있다. 이들이 선편(先鞭)을 잡은 의의가 있지만, <홍부가>, <심청가>에서의 의식주, <완월회맹연>에서의 시공간과 일과, <현씨양옹쌍린기>,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 등에서의 아내의 남편 고향 먹이기와 시대 식구들의 머느리 편들기를 다루는 등 한정된 작품에서 일상의 일부만을 다룬 점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이에 본고에서는 좀 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의 다각적인 면모를 살피려 한다.

2. 고전소설 속 일상생활의 양상

1) 일과와 노동

고전소설 중에서 사대부 집안의 일과(日課)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완월회맹연>을 들 수 있다. 아침저녁에 문안을 드리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자주 언급되고는 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린 뒤에 남성들은 주로 독서를, 여성들은 주로 웃어른 봉양과 음식 만들기를 하다가 밤이 되면 부모님 이불을 깔아드리고 인사를 드렸다는 정도의 서술들이 나온다. <소현성록> 같이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도 문안 인사를 드린 뒤에 독서를 하고 잠 자리에 들기 전에 혼정(昏定)하는 등의 일상이 언급되곤 하는데⁷⁾ 이를 통해 그들의 효성과 근면함이 드러난다. 특히 소현성의 말년을 보면 남성 사대부의 노년의 일과를 알 수 있는데, 저녁에는 자손들을 데리고 서헌(書軒)에서 시(詩)와 부(賦)를 지어 문장을 권하면서 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손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조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간혹 연못의 풀을 베거나 계단의 이끼를 쓸면서 제갈공명의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곡식의 풍흉을 논하거나 호미로 김을 매면서 백성들의 농사를 돕기도 한다.⁸⁾

사대부 가문의 여성의 경우, 소현성의 아내 석씨의 일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아침 몸단장을 마친 후에는 시어머니 처소에 가서 저물 때까지 식사 준비를 살피고 서모들이 시비(侍婢)들 일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을 돕는다. 간혹 후원에 가서 산수(山水)를 구경하고 담소를 나누며 한 해의 누에치기에 대해 상의하기도 한다.⁹⁾ 가장(家長)의 역할을 말년까지 했던

7) 최윤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일상 문화의 풍경」, 『한국고전문학회 277차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6. 8. 소현성의 혼정신성과 문안, 학문과 수신 등에 대해 집안 공간의 의미와 더불어 고찰하였다.

8) <소현성록> 15권 20~21쪽.

양부인은 집안의 재물과 그릇, 비단 등의 출납을 총괄하였고 실제 관장하는 것은 서모 석파와 이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느질이나 옷 만들기는 주로 시녀들이 하였고 장복(章服)이나 관복(官服) 등 중요한 옷만 스스로 지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시사(詩詞)를 화답하여 읊고 바둑으로 소일하였다.¹⁰⁾ <유씨삼대록>에서도 아내들은 바느질, 손님 접대 등을 하면서 시를 읊거나 책을 읽으며 소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¹⁾ <완월회맹연>에서도 정인광의 아내 소씨는 새벽에 신성(晨省)을 하고 혼정(昏定) 때까지 시할머니의 처소에 머물러 하루 종일 어른 모시기와 집안일을 한다. 인광의 어머니 화부인도 시녀를 시켜 삼을 삼는 등 옷감을 마련하거나 아들의 저녁밥을 챙겨 주는 등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예사였으며, 철이 지날 때마다 남편과 자식의 의복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²⁾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에는 여성노동의 가치와 치산 능력, 인력 관리 능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가장(家長)의 역할을 한 여성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남편인 가장의 우월함, 가문의 청렴함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 살림을 책임지고 생계도 꾸리게 된 상황이 부인으로 하여금 가장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하여 부인들은 계획성, 정확성, 효율성의 덕목을 실천하는, 근대적 여성 성역할을 보이게 되어 그 이전 시대에 칭송 받던 군자나 성인 같은 면모와 대비되게 되었다.¹³⁾ 여기에 더하여 여성이 양잠과 방적 같은 생산노동을 하거나 고리대와 상업, 청탁

9) <소현성록> 4권 117~121쪽.

10) <소현성록> 4권 124~126쪽.

11) <유씨삼대록> 6권 29쪽.

12) 이지영, 앞의 논문, 45~46쪽.

13) 강성숙,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2013.

과 수수 등 적극적인 경제 활동까지 했음도 드러나¹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보다 한층 대외적이고 사회적인 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양반 여성들 중 집안의 경제권을 책임지면서 입후권(立後權)이나 총부권(冢婦權)을 갖게 되었고, 집안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재산이나 가계 운영과 관리, 보존하는 일을 맡아 하면서 경제적으로 무관심한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남편을 대신하여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¹⁵⁾

한편, <심청가>, <홍부가> 등 판소리를 통해서서는 서민 여성이나 가난한 양반 가문 여성의 노동에 대해 알 수 있다.

길쌈으로 의논하면, 궁초, 공단, 수주, 락능갑사, 운문토주, 갑주, 분주, 표주, 조포, 북포, 황제포며 제추리, 삼베, 백저, 춘포, 십오승 극상세목, 혼장대사 음식숙정, 갓은 증편, 중계, 약과, 백산과자, 신선로며 갖가지 반찬, 약주 빚기, 수팔연 봉오림과 배상하기, 괴임질과 청홍흑백 침향회색 각색으로 염색하고 일년 삼백육십일을 잠시도 놓지 않고 손톱, 발톱 찾아지게 품을 팔아 모을 때에, 푼 모아 돈 만들고, 돈 모아 양 만들고, 양을 모아 관돈 되니, 가까운 이웃 사람들 가운데 착실한 데 빛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추시향 제사 모시기와 앞 못 보는 가장공경이 한결 같으니 모든 사람들이 꺾씨를 거룩타 칭찬하더라. <이선유 심청가> 78쪽.

홍부 아내 품을 팔 때, 용정방아 키질하기, 술집에 술 거르기, 초상집에 제복 짓기, 제삿집에 그릇 닦기, 신사(神祠)집에 떡 만들기, 언 손 불며 오줌 치우기, 얼음 풀리면 나물 뜯기, 봄보리 갈아 보리 놓기, 온갖 일로 품을 판

14)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 18~19세기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4, 2012.

15)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 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다. 흥부는 정이월에 가래질하기, 이삼월에 붙임하기, 일등전답 못논 갈기, 입하 전에 면화 갈기, 이집저집 이영 엮기, 더운 날에 보리 치기, 비 오는 날 명석 걷기, 원산 근산의 시초(柴草) 베기, 무곡주인(貿穀主人) 짐 저주기, 각읍 주인 샅길 가기, 술만 먹고 말짐 실기, 오 푼 받고 말편자 박기, 두 푼 받고 똥채 치기, 한 푼 받고 비 매기, 식전에 마당 쓸기, 저녁에 아이 만들기, 온갖 일을 다 해도 끼니가 간데없네. <경관 25장본 흥부전> 138쪽.

<심청가>에서 심청의 어머니 꺾씨 부인은 가난한 집안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길쌈하기,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 천 염색하기 등으로 품을 팔면서도 제사를 모시고 남편을 잘 공양한다고 칭찬을 받는다. <흥부가>에서 흥부의 아내는 술 거르기, 옷 짓기, 그릇 닦기뿐만 아니라, 오줌 치우기 같은 험한 일도 한다.

연이어 나오는 흥부의 품팔이는 서민 남성의 노동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 가래질하기, 논 갈기, 면화 갈기, 이영 엮기, 명석 걷기, 짐 들기, 마당 쓸기 등 실로 다양한 일들이 있다. 판소리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이들의 노동에 대해 묘사하고 있기에 앞에서 살핀 상층인들의 노동과는 달리 돈을 버는 일 즉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를 더 크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독서와 교육

사대부가의 남성들의 독서와 교육에 대해서는 <소현성록>을 참고할 수 있다. 다른 장편소설들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 소현성은 제자들만 가르칠 뿐 아들을 가르치지는 않고 단경상이라는 사람에게 아들들의 교육을 맡긴다. 현성 자신은 홀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한 번 읽으면 바로 외워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하루 네 번 문

안을 드렸는데 그럴 때에 글의 뜻을 여쭙고 시사(詩詞)도 배우는 식이다. 실제로도 양반 가문의 홀어머니들이 아들을 잘 가르쳐 훌륭하게 키운 예들이 있는데, 김만중, 남구만 같은 경우이다. 남구만의 어머니 안동 권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기를 바라 매우 혹독하게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합격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의로운 방법으로 엄하게 가르쳤다고 한다.¹⁶⁾ 소현성이 읽고 배웠다는 <소학>, <논어>, <예기>, <주역>, <시경>, 여러 사서(史書)들도 당대인들의 독서 목록과 다르지 않다.

사대부가의 여성들도 <소학>, <예기>, <시전>, <서전>, <대학>, <열녀전>, <내훈>, 역사서, 옛 문인들의 시집, 행장 등을 읽으면서 예법을 익히고 교양을 쌓았다고 하는데¹⁷⁾,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도 그 주된 향유층인 사대부가 여성들의 독서 상황을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다. 소설들에서 여성인물들은 여가가 날 때마다 옛 책들을 읽거나 시를 짓는 일로 소일한다.¹⁸⁾ 어떤 여성은 개인 서재(書齋)가 있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되어 있으며, 수심 간이나 되는 방에 정묘하고 특별한 수만 권

16) 황수연, 앞의 논문, 189쪽.

17) 허원기, 『『곤뵤』에 나타난 여성 독서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18) 이씨는 정허 모춘이라. 동산의 빅화 만발하야 그 풍경이 가이 구경허엄죽흔지라. 한 남이 천즈를 피서 셔원의셔 잔치를 비설하미 밋쳐 도라오지 못했더니, 이씨 사부인이 홀로 셔안을 의지하야 고셔를 널남하더니, <사씨남정기> 26쪽.

일찍이 대군은 저에게 마음 둔 적이 없었으나, 궁중 사람들은 모두 대군이 저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0명은 모두 동쪽 방으로 물러 나와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칠보 책상 위에 『당률(唐律)』1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이 지은 궁원시들의 고하(高下)를 논했습니다. 저는 홀로 병풍에 기대어 진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운영전> 116쪽. 大君未嘗有意於妾, 而宮中之人, 皆知大君之意在於妾也. 十人皆退在東房, 函燭高燒, 七寶書案, 置唐律一卷, 論古人宮怨詩高下. 妾獨倚屏風, 悄然不語, 如泥塑人. 275쪽.

의 서책이 있다고 되어 있다.¹⁹⁾ <조씨삼대록>에서 조씨 가문의 딸 자염은 남자들도 알기 어렵다는 천문(天文)에 대해 아버지에게 배우기도 하는 등 여사(女士), 도학군자(道學君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많은 소설들에서 여주인공에게 <열녀전> 읽기가 권유되거나 읽고 있는 장면을 찾을 수 있는데²⁰⁾, 이로 보아 당시 여성들의 독서 대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열녀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판소리 같이 하층인들이 주로 향유하던 작품에서는 독서나 교육에 관한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책방에서 천자문을 읽는 대목처럼 유희의 하나로 활용되는 선에서 그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이 도사

19) 선덕누 방(을) 여러주니 싱이 드러가 보매 수십 간 텅둥의 산호 뉴리 옥서안과 칩거리를 노코 각식 서책을 쟈레로 빠하 일흠 모를 거시 쉬 업고 정묘하며 괴특야 수만 권 서책이 다 박은 거시 아나 다 소부인의 친히 써 장척흔 거시라 공녀이 현대하고 괴이하며 거룩함미 승상의 장서각도곤 더하니 가히 녀똥혹식라 싱이 칭찬호를 마디 아니하고 북녁히 디모로 민든 궤 수십이 노혀시니 열고 보니 온갖 네 명해 쉬 업고 우히 흔 궤에 무수흔 그림이 다 부인의 만물을 그려 녀흔 거시라. <소현성록> 12권 102쪽.

20) 츠시 승상이 계전에 비회하며 리친지회를 억제치 못야 정히 초창하더니, 바람결에 글 소리 들리거늘, 승상이 경혹야 해오디, ‘글 소리가 승도의 유는 아니니, 엇지 흔 스름이 이 심산벽처에 공부를 하리오.’ 하고 글 소리 나는 곳을 향야 가며 드르니, 별당에서 낭랑흔 소리 들니거늘 창 틈으로 좃춘 여허보니, 축하에 일위 미인이 열녀전을 보고 뒤에 녀동이 시립하였스며 두 닛 아히 나금에 싸혀 즈거늘, 심중에 의아하며 즈세 살펴보니, 그 녀즈의 빅티만럼이 스벽에 료료야 만고결럼이라. <옥난빙> 184쪽.

부인을 직삼 위로하고 츠마 공척만 보내디 못하고 교영을 드리고 갈시 부인이 울기를 굶치고 좌우로 널녀던 흔 권을 갖다가 교영을 주어 왓 이 가운데 녀중편과 도미의 안해며 빅영공쥬며 녀디 절부의 횡적이 이시니 네 맞당이 덕소의 가져가 좌우의 씨나디 아니면 심산공곡의 호랑 갖튼 무리 비레로 구박하느 즈연 몸이 심만 군병이 웅위호드곤 구드며 도호미 옥 갖야 절을 일터 아니려니와 이를 어그릇츠면 가문의 욕이 밋츠리니 구천의 가나 서르 보디 아니리라. <소현성록> 1권 21쪽.

소저가 부친과 작별한 후부터 깊이 침소에 있어 울음으로 날을 보내며, 때때로 열녀전을 보아 마음을 위로하더라. <옥미당기> 71쪽. 小姐自別父親之後, 深居寢所, 涕泣度日, 時觀烈女傳以爲散悶. 71쪽.

에게 병법과 검술 등을 배운다.²¹⁾ 이것이 익숙해지면 조화술 같은 신통력도 수련하여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게 된다. 남장한 여성이 장수가 되는데, 그녀는 장차 남편이 될 남성보다도 뛰어난 전술(戰術)을 발휘하여 고난을 극복한다.

3) 의식주생활

① 현대인들은 의복을 주체적이고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지만,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대체로 규격화된 옷을 입곤 했기에 개성을 찾기는 어렵다. 특히 옛 여성들은 개성을 살리기는커녕 여러 가지 행동에 규제를 받았기에 복장도 거의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규제 속에 있었기에 가정 밖으로 나가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고전소설 속 여주인공들은 남성의 옷을 입곤 하였다. 가정 내에 있을 때에는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서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가정 밖에서 활약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남장(男裝)을 하고 남자로 행세하면서 무공(武功)을 쌓는 모습을 보였다. <홍계월전> 같은 여장군형소설을 비롯하여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도 무술을 익힌 여성들은 대체로 그러했는데, <방한립전>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여주인공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남장을 하고 살았고²²⁾ 성정체성도 거의 남성이었다.

21) 용병지계와 각종 술법을 다 가르치니 검술과 지략이 당세에 당할 이 없을지라. 계월의 이름을 곧 차 평국이라, 세월이 여류하여 두 아희 나이 십삼 세에 당하였는지라. 도사 두 아희를 불러 왈, “용병지계는 다 배웠으니 풍운조화지술을 배우라.”라고 하고 책 한 권을 주거늘, 보니 이는 전후에 없는 술법이라. 평국과 보국이 주야불철하고 배우는데, 평국은 삼 삭 안에 배워내고 보국은 일년을 배워도 통치 못하니 도사 왈, “평국 재주는 당세에 제일이라.”하더라. <홍계월전> 175쪽.

22) 기상이 준슈하야 규리 옥녀의 거동이 업고 신장이 날노 늴늴하야 빅년 갖튼 안식과 추천 갖튼 기운이며 진주갖튼 안광이며 비아호로 말을 일으키 글즈를 가라친이 혼아 흘 드러 열을 통하고 열을 드르면 천을 씨친이 부모 익중하야 아달 읍스믈 혼치 아니

한편, 의복은 가문의 지향의식에 따라 사치와 검소의 정도를 나타내는 잣대로 이용되었기에 검소함을 지향하는 가문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사치를 경계하는 서술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의복이 주로 묘사되는 부분은 혼례를 치를 때 또는 경치 구경을 가거나 잔치 자리에 참석할 때에 화려하게 입고 나온 주인공을 조명할 때가 많으며,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판소리 <춘향가>²³⁾, <계우사>²⁴⁾ 등에서는 젊은 남성의 호사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세태소설 <이춘풍전>²⁵⁾에서도 화려한 옷차림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서

하고 홍금척의(紅錦彩衣)로 입피되 문빅 쇼계 천성이 쇼탈하고 금소호야 취삼으로 체긴 옷을 입고즈 혼난지라 방공 너의 여아의 뜻슬 맞초야 쇼원더로 남복을 지어 입피고 아직 어린 고로 여공(女工)을 가라치지 안코 오직 시서를 가라친이, 방 쇼계 나히 어리나 서공이 날노 장진호야 시셔빅가어를 무불통지호야 니두를 모시하니 용안풍치 더욱 쇠락호야 츄월이 무광하고 춘화 붓그럴지라. <방한림전> 91~93쪽.

- 23) 도령님 치레 볼작시면, 신수 좋은 고은 얼굴에 분세수 정히 하고, 치렁치렁 채머리에 기름을 많이 발라 반달 같은 용얼레빛으로 홀리빚겨 비단댕기 석옹항 물려 맵시있게 잡아 매고, 육사단 겹배자 밀화단추 달아 입고, 분주바지 세포버선 통행전 무릎 아래 던짓 매고, 영초단 허리띠 모초단 두루주머니 갖은 매듭 고를 내어 던짓 매고, 청사도 포 몸에 맞게 지어 입고 비단띠를 흉중에 던짓 맷다 <별춘향전> 34쪽. 앞으로 인용하는 별춘향전, 심청가, 계우사의 출전은 모두 『쉽게 풀어쓴 판소리 열두 바탕』(정병현의 편, 민속원, 2011)임.
- 24) 호사 치레 볼 양이면 잎 모양의 금 동곳, 큰 바다의 산호 동곳 비스듬히 어깨에 꽂고, 외울망건, 대모관자, 쥐꼬리 당줄, 진품 금패, 좋은 풍잠 이마 위에 서게 묶고, 갑주, 보라색 잔줄 저고리, 백갑주 누비바지, 백제우사 통한삼에 장원주 누비 동옷, 통화단 잔줄 배자, 양색단 누비 토시, 순밀화 장도, 학슬안경, 당세포 중치막에 지품당띠 통대자 허리띠며 우단 주머니, 오색 모초 고운 싹지 당팔사 끈을 달고 용두항이 대당전을 옷고름 아래 달아 차고, 버들잎 모양 고운 발 들어간 육날 미투리를 손가락으로 얹드려 맷다 풀었다 하고, <박순호 소장본 계우사> 433쪽.
- 25) 외울당끈 관자 다라 맵시 잇게 질근 씨고, 천은 갖튼 중주 타관 삼백 대 진사님의 만호 갖튼 산호격자 두 귀 밧헤 접쳐 달고, 방자바지 통행전의 삼승버선 만석당혜 쥐논히 제자증을 맵시 잇게 박어 신고, 진주황라 생명주 창의 예당세포 뒤태기를 몸의 맞게 지어 입고, 애양패 갖두루막기 자지광대 장패 조흔 띠로 숲복통을 눌러 매고, 만선도리 서피 휘양 두 귀을 눌러 씨고, 대모장도를 맹자 고름의 눌러 차고, 쇼상반죽

술자의 서술은 없이 주인공의 옷차림을 죽 훑어가는 식의 묘사로 그친다.

상층 사대부 남성의 의복은 <소현성록>²⁶⁾ 등 다른 작품에서도 간혹 보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옷차림은 찾아보기 힘든데, 주인공에 주목하는 소설의 특성상 주변인인 평민이나 천민의 의복에는 지면을 할애하지 않은 듯하다. 상층 여성의 경우에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주로 붉은 비단 치마와 푸른 적삼을 입었다. 소박한 것을 표방하는 가문에서는 수를 놓거나 금사(金絲)를 더하거나 진주나 칠보 장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²⁷⁾ 봉호(封號)를 받은 부인들은 봉황 문양이 새겨진 관(冠)을 쓰고 옥패를 댔는데, 혼례와 같이 집안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금사로 꾸민 붉은 비단 옷과 치마를 입고 쌍봉관(雙鳳冠)을 쓰고 명월패(明月佩)를 차는 등 화려함을 더했다.²⁸⁾ 부인들 간의 위계도 의복에서 드러났는데, 정실(正室)은 쌍봉관을 쓰고 두 줄의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른 것에 비해 둘째부인은 봉관(鳳冠)을 쓰고 꽃신만을 신었다.²⁹⁾

② 바르트에 의하면 음식은 의사소통체계이면서 이미지의 구현체이자, 관례와 상황과 행동의 시발점이다. 따라서 음식을 둘러싼 일련의 소통 과정은 권력의 유무와 밀착되어 있기도 하기에 타자화의 권력 현상을 잘 드러내는 변인이 된다. 인간은 음식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사회적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과 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별되는 중심과 주변의 서열 체계가 그대로 음식의 분할에 대응되는 것

쇄금선의 이궁전 선초 다라 한삼 속의 년짓 쥐고, <이춘풍전> 348쪽.

26)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자줏빛 두루마기를 입고,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매고, 붉고 목이 있는 신발을 신으며, 손에는 아홀을 잡는다. <소현성록> 2권 75쪽.

27) <소현성록> 5권 113쪽,

28) <소현성록> 6권 37쪽, 8권 93쪽, 12권 120쪽.

29) <유씨삼대록> 9권 80쪽.

이다. 따라서 ‘남/녀’는 조리와 섭생에 있어서 ‘결과/과정, 중심/주변, 우선/차선’ 등으로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³⁰⁾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음식과 관련하여 이런 서열체계가 남/녀, 양반/서민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특히 권력구도 속 최하위에 속하는 서민여성들은 음식을 먹거나 누리기보다는 만드는 노동을 감수해야 했기에 간혹 갖는 놀이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향유했던 자탕가 계열 작품들에서는 음식하기의 어려움이 토로되는 한편, 놀이 공간에서의 음식 만들기는 웃음과 재미를 유발하는 행위로 표현된다. 자신의 요리 솜씨를 발휘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즐기기도 했던 것이다.³¹⁾

특히 고전시가에서는 음식이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효(孝)의 매개로 조흥감이 등장하기도 하고, 시름없는 삶과 유희의 분위기를 돋우는 것으로 술이 등장하기도 하며, 안빈낙도의 지향으로 나물 안주에 마시는 술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술은 세상일 회피, 욕망 긍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박한 음식이 맛있다는 안빈지족의 의식을 보여주는 매개물로 작용했다.³²⁾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서는 술도 그것을 빛는 행위가 가사노동의 하나로 자리하였기에 고달픈 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간혹 갖는 놀이의 공간에서는 남성의 주류 문화를 향유하는 경험

30) 김미현 외, <한국어문학여성주제어사전 4 - 공간과 사물편> 음식장, 보고서, 2013 참조.

31) 화전급세 화전급세 여러 모양 화전급세 /천원지방 뽕을받아 등글게 구어불까 /아롱다롱 꽃을 섞어 보기 좋게 구어불까 /무럭무럭 김을 내어 먹기 좋게 구어보세 /백설 갖은 밀가루와 늦적갈은 파를 섞어/ 넓적넓적 구어 내어 공산명월 방불하다/ 붉고 붉은 두견화를 아롱아롱 무늬 새겨/ 보기 좋게 구어 내어 둘러앉아 맛을 보니/ 맛도 좋고 빛도 좋다 이 솜씨가 뉘 솜싹고 /이리 굵고 저리 구어 솜씨 있게 구어 낸다. <화전가>. 위의 책 참조.

32) 조성진, 「고전시가에 나타난 음식 이념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32, 2015.

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 속 감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³³⁾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주로 남녀가 만나는 자리에서 담소를 나눌 때에 술상이 차려지는데, <춘향가>, <만복사저포기>, <주생전> 등 애정을 주요 서사로 하는 소설들뿐만 아니라 여타의 소설들에서도 그러하다.³⁴⁾ 만남의 자리에서만큼 이별의 자리에서도 종종 술이 등장하는데, 헤어지는 안타까움과 헤어진 후의 그리움 등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고전소설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음식 이름이 열거되는 장면만 <춘향가>³⁵⁾, <계우사>³⁶⁾ 등 판소리에서 볼 수

33) 이리저리 갈나안즈 동즈불너 술부어라 한잔먹고 놀아보즈/ 일비일비 부일비로 취도록 마신후에/ 취흥이 도도하야 희춘가 한곡조를 /겘이옴어 빅히하니 인간헝낙 만타흔들/ 우리들이 오날노림 이우에 더할소나/ 여보소 친구들아 노소를 물론흔고 마음노코 놀아보세/ 이날을 허승흔고 각각집에 돌아가면/ 봉점구고 사군즈에 다시기히 업서진다/ 술마시고 노리흔며 노리흔고 술마시고 흥취있게 놀아보세. <휘춘곡>. 김미현 외, 앞의 책 참조

34) 술치레로 불작시면 도연명의 국화주와 두초당의 죽엽주며 이적선의 포도주와 안기생의 자하주며 산림처사 송엽주와 천일주를 가지가지 놓았는데, 향기로운 연엽주를 그 중에 골라내어 주전자에 가득 부어 청동화로에 덩그렇게 걸어 놓고 차지도 않게 뜨겁지도 않게 데워내어 유리배 앵무잔을 그 가운데 띄웠으니 <별춘향전> 43쪽.

여인이 말했다. “오늘 일은 아마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느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분의 고운님을 만나 백년해로를 하기로 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예절에 어긋났다 하겠으나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된 것은 또한 기이한 연인이라 하겠다. 너는 집에 가서 앓을 자리와 주과(酒果)를 가져오너라.” 시녀는 분부에 따라 돌아갔다. 미구에 딸에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4경이 되려고 했다. <만복사저포기> 15쪽. 女曰, “今日之事, 蓋非偶然, 天之所助, 佛之所佑, 逢一粲者, 以爲偕老也. 不告而娶, 雖明教之法典, 式燕以邀, 亦平生之奇遇也. 可於茅舍, 取裊席酒果來.” 侍兒一如其命而往, 設筵於庭, 時將四更也. 126~127쪽.

주생이 글을 다 짓자, 배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옥선에 서하주를 따라서 주생에게 권했다. 주생은 술을 마실 마음이 없어서 이내 사양하고 마시지 않았다. 배도는 주생의 마음을 알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주생전> 40쪽. 生詞罷, 桃自起, 以藥玉船, 酌瑞霞酒, 勸生. 生意不在酒, 仍辭不飲. 桃知生意, 乃悽然曰. 245쪽.

35) 술과 안주를 차릴 적에 그릇을 불작시면 통영소반 안성유기 왜화가 당화기며 동래주발 적벽대접 친은순가락 유리젓가락이요, 안주를 불작시면 대양판에 갈비젓 소양판

있다. 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담겨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심청가>의 뽕떡어미³⁷⁾처럼 식욕이 많거나 대식(大食)을 하는 여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착한 여성은 먹지 못하거나 거친 음식을 먹게 되어도 이를 견딘다면 음식에 대한 무욕(無慾), 참을성이 착함을 대변하기도 하였다.³⁸⁾ 그렇기에 국문장편 고전소설이나 전기소설 등 상층이 주로 향유했던 소설 유형들에는 식생활

에 제육초, 풀풀 뛰는 승어고기 터드득 터드득 메추리짐에, 꼬끼오 연계탕에 톱방통방 오리탕에, 동래 울산 대전복을 맹상군의 눈썹처럼 어슷비슷 오려 놓고 염통산적 양복이며 깔깔 우는 생치다리 석가산같이 덩그렇게 괴어 놓았다. <별춘향전> 43쪽.

- 36) 온갖 음식을 준비하여 대령하였으되, 화류 강진 교자상에 금사화기 유리접시 벌여놓고, 꿀병, 편강, 민강이며, 대밀주, 소밀주, 호도당, 포도당에 옥춘당, 인삼당, 왜편, 호편 곁들이고, 인삼정과, 포과정과, 생강정과 곁들이고, 유자, 갈매, 포도, 석류, 생물, 숙물, 은행, 대추, 봉산 참배, 유자, 감자 등등, 전복과 낙지조차 곁들이고 착면화채, 배무름에 수정과를 곁들이고, 메밀 완자 신선로에 변화하더라. 병거깃꼐 아귀짬, 갈비찜에 생강을 곁들이고 어육, 제육, 어만두, 떡볶이가 소담하더라. 평양 세면 부비염에 황주 냉면 곁들이고 울산 전복 봉오림에 매화오림, 문어오림, 실백자를 곁들이고, 김치, 양채, 갖은 야채 각색으로 놓았는데, 색 있는 갖은 편에 두데 떡을 곁들이고, 양고음, 우미탕에 누루미를 곁았는데, 설령탕 한 동이는 하인청에 들어 놓고, 평양의 감홍로, 계당주, 노산춘, 이강주, 죽엽주를 각색 병에 들어 놓고, 노자작, 앵무배로 오산에 기우는 듯, <박순호 소장본 계우사> 440쪽.
- 37) 양식 주고 썩 사먹기, 배를 주위 돈을 사서 술사먹기, 정자밧떡 낮잠자기, 이웃집의 밥부치기, 동인다리 욱설하기, 초군덜과 쌈싸오기, 술취하여 흥남중의 와 달석 올림 울기, 빈담비디 손의 들고 보는데로 담비 청하기, 총각 유인하기, 제반 악증을 다 곁하여 그러하되, 심봉사는 여러 히 주린 판이라 그 중의 실낙은 잊서 아모란 줄을 모르고 가산이 점점 퇴척하니, <심청전> 160~162쪽.
- 38) 구패 또한 황홀한 스람이 비홀 곳이 업스나 위뉴의 흥심은 처음은 스랑하느 체하더니 점점 슈삭이 되리 작심이 었디 오리리오 식호지심으로써 니르디, “당시 구가를 능멸하고 불인한 고모와 동심하여 조모를 원망한다” 하여 불혹한 거저 증출하고 도석 식반을 업시하여 괴이한 지강과 축한 락육을 주니 덩쇼계 싱어부귀하고 당여호치하여 존당 부피 만금 무이하여 사람이 즈기를 향하여 불평한 소리하를 듣지 못하고 상시 욱식 진찬을 넘던 바로 지강 락육을 썸이나 보아시리오마는 성혼 슈삭의 간고 험난이 이 곳하여 무고한 호령과 무죄한 즐척이 년면하니 두리온 믱음이 여림박빙하디, <명두보월빙>.

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잔치 자리가 성대했다거나 식사 봉양을 극진히 했다는 서술 정도로 그치고 있다.

③ 고전소설에서 접할 수 있는 주거 생활은 우선, 집 꾸밈에 관한 것이다. <심청가>에서 장승상 대³⁹⁾을 보면, 집 앞에는 버드나무가, 왼쪽으로는 벽오동이, 오른쪽으로는 반송이 심겨 있고, 처소 앞에는 연못과 꽃밭이 있는 것이 부유한 양반 집의 모습이다. 흥부가 짓는 집⁴⁰⁾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민들이 바라는 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안방, 대청, 행랑채 등이 있으면서 집 앞뒤에는 정원과 마구간, 곳간이 있고 방아와 우물, 별통, 원두막 등이 곁에 있어서 자급자족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인다. <계우사>에서의 방안의 모습⁴¹⁾은 주인공 무숙이가 기생 의양

39) 승상대 있는 곳을 멀리서 바라보니 집 앞의 두른 버들 엄용한 시상촌을 황금 같은 저 피꼬리 자내느니 버들잎이로다. 좌편의 벽오동은 마른 이슬 떨어져서 학의 꿈을 놀래 깨고, 우편에 섰는 반송 청풍이 건 듯 불면 노룡이 움직인 듯, 창 앞에 심은 파초, 속잎 빼어 입에 물고, 달 아래에 부용당은 벽수가 따스하여 엽전 같은 연잎이 물 위에 떠서 동실동실, 징경이는 쌍쌍, 금붕어 등등, 흥도, 벽도, 모란, 작약 화단을 만들었는데, 풍류를 자랑하는 버드나무와 꽃들이 만개한 중문을 들어가니 집모양도 굉장하고 창문도 화려하다. <이선유 심청가> 91쪽.

40) 명당에 집터를 닦아 안방, 대청, 행랑, 몸채, 내외분합 물림터, 살미살창 가로단이 입구자로 지어놓고, 앞뒤 정원, 마구 곳간 등을 좌우에 벌여 짓고, 양지에 방아 걸고 음지에 우물파고, 울 안에 별통 놓고 울 밖에 원두막 놓고, 온갖 곡식 다 들었다. <경판 25장본 흥부전> 146쪽.

41) 방안 차례 차릴 적에, 두꺼운 장판지, 중국산 종이로 도배한 벽이며, 매화꽃이 그려진 방 휘장, 개천도를 항상 보게 걸어두고, 대모 병풍에는 삼국 그림, 구운몽도, 유행도며 관동팔경 좋은 그림 각 벽에 그리고, 화류평상, 금파서안, 삼층들이 각계수리, 오사목, 갖은 문갑, 자개 함롱, 반단이며 대모 책상, 산호 필통, 사서삼경 온갖 책을 무더기로 쌓아두고, 담비가죽 휘장, 호피 방장, 왜포 청사, 모기장을 은근히 드리웠더라. 평생 먹을 유밀과와 평생 쓸 당춘약과 진옥에 새긴 별춘화도, 청강석, 백강석과 산호, 호박, 청백옥 모두 들어 온갖 가화칠보 새겨 유리 화류장을 꾸며 내어보기 좋게 놓아두고, 천은 요강, 순금 타구, 백동 재떨이, 백문 서랍, 셋별 같은 대강선에 철침, 퇴침 등반이에 큰 거울, 작은 거울에 오도독 주석 놋 촛대에 양초 박아 놓아두고, 유리 양

을 속신시키기로 합의한 뒤에 아내로 앉히고 살림살이를 시작하느라 심하게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므로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당대인들이 부러워 하던 바일 듯하다.

한편, 조선시대의 상층 양반들의 주거 문화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인데, 이들의 공간적 배경이 비록 중국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실재를 허구로 느끼기도 하고 허구를 실재로 느끼기도 하게 하는 공간 설정의 묘(妙)일 뿐⁴²⁾, 우리나라 즉 조선후기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 작품들에서 부인들은 각각 당호(堂號)가 붙은 거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녹운당, 벽운당, 청운당 등이 그것이다. 남녀의 공간은 중문(中門)을 중심으로 하여 내당(內堂)과 외당(外堂)으로 분리되어, 공간에 있어서도 내외법(內外法)을 엄격히 지켰음을 알 수 있다.⁴³⁾ 거처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대목이 많지 않지만, 아래의 예문을 통해 대강의 크기와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석부인이 계시는 벽운루가 협소하다고 말하며 높은 루에 아름답게 단청한 누각을 100간(間) 되는 크기로 세우고 붉은 옥으로 난간을 꾸몄다. 그리고 가운데에 50간 되는 누각을 세워 남북으로 두 방을 나누고 북루(北樓)는 더위를 피하게 하고 남루(南樓)는 추위를 피하게 하였다. 넓게 두 곳을 나뉘 시녀를 50인씩 두고 모친을 모시니, 석부인이 비록 자녀의 효도하고자 하는 뜻을 알지만 모든 면에 있어 취성전과 같은 것을 편하지 않게 여기고는 시녀

각등을 달고, 홍전, 백전, 몽고전과 진지 보초 모탄자와, 각색 금침 수십 벌과 진귀한 갖은 패물, 좋은 모피를 걸어놓았더라. 산삼, 녹용, 부경잡탕, 경옥고, 팔미환, 사물탕, 쌍화당을 오래도록 복용하고, 은금보화 비단포목을 산같이 쌓아 두었구나. <박순호 소장본 계우사> 449쪽.

42)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6, 14~19쪽 참조.

43)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42~93쪽 참조.

의 수를 줄이고 의복을 검소하게 하였다. <소현성록> 12권 40쪽.

석부인은 소현성의 둘째 부인이어서 거처가 작았었는데, 태부인이나 소현성의 첫째부인인 화부인의 처소와 같이 100여 간에 이르는 큰 규모로 화려하게 다시 짓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집안의 어른인 양부인의 처소는 취성전, 딸 월영의 처소는 운취각, 그녀의 서재는 선적루, 석파의 처소는 일희당 등 각각 거처를 부여 받았으며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보장되었다.

3. 고전소설 속 일상생활 서술의 효과

고전소설에서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어떤 효과를 내었을까? 우선, 꺾진한 현실감을 확보하게 하였을 것이다. 특히 판소리나 판소리게 소설에서 하층민들의 의식주생활이 꺾진하게 묘사됨으로써 서사도 아울러 현실감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일상의 재확인을 통해 작품 속 이야기를 자기 주변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공통 기반 위에서 효과적으로 공연도 되고 읽히기도 했을 것이다. 이는 또 한 장면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제시하는 장면의 구체화 기법과도 맞닿아 있으며, 당연히 누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하층민들의 일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작가의식의 표명이기도 하다.⁴⁴⁾

일상생활 중에서도 의식주생활의 경우는 특히 작가의 주관적 진술보다 당대의 실생활을 그대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옷매무새, 집과 방의 모습, 술과 안주를 위주로 한 음식의 모습 등은 현실감 있게 그 장면을

44) 정충권, 앞의 논문.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소설의 특성상 주인공 위주의 묘사가 이루어 지다 보니 상층 인물들의 경우가 많고,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가난한 인물에 해당하는 일상일 경우가 많아 아쉽다.

실제 평범한 이들의 의복을 알 수 있는 글로는, 사실을 그대로 옮긴 이옥의 <시기(市記)>⁴⁵⁾ 등을 들 수 있다. 의식주생활에 대한 묘사가 적은 것은 당대인들이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일 것인데, 17세기 초반의 문인 윤선도가 큰아들에게 준 가훈을 보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의복과 말안장 등 모든 자신을 받드는 것은 이전의 습속과 폐단을 고치고 줄여라. 식사는 배고픔을 채우면 족하고, 옷은 몸을 가리면 족하며, 말은 건지 않으면 되고, 안장은 튼튼하기만 하면 되며, 그릇은 적절히 쓸 수 있으면 된다.”⁴⁶⁾라고 하였으며, 덧붙여 아들이 명주내복을 입었던 것을 나무라면서 이런 옷은 질박함에 가까워야지 사치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하였다.

식생활에 대한 정보가 특히 소략했는데 이는 많이 먹는 것을 탐욕스럽거나 사치스럽다고 생각해서였던 듯하다. 판소리에서만 안주, 술 등을 다양하게 열거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고, 요리를 하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 주생활에 대해서는 집과 방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었는데, 판소리에서는 다소 과장되고 화려하게 열거함으로써 자신들이 소망

45) 넓은 소매에 자락이 긴 옷을 입을 사람, 저고리와 치마를 입을 사람, 좁은 소매에 자락이 긴 옷을 입을 사람, 소매가 좁고 짧으며 자락이 없는 옷을 입을 사람, 방acket에 상복을 입은 사람, 승포와 승랍을 한 중, 패랭이를 쓴 사람 등이 보인다. 여자들은 모두 흰 치마를 입었는데, 흑 푸른 치마를 입은 자도 있었고, 아이로서 의대를 갖춘 자도 있었다. 남자가 머리에 쓴 것 중에는 자줏빛 휘황을 착용한 자가 열에 아홉이며, 목도리를 두른 자도 열에 두셋이었다. 패도는 어린아이들도 역시 차고 있었다. 서른 살 이상 된 여자는 모두 조바위를 썼는데, 흰 조바위를 쓴 이는 상(喪)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시기>, 실시학사연구회 역, 『이옥전집』 2권, 소명출판, 2001, 72쪽.

46) 정구복, <가훈>,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2, 39~41쪽.

하는 집의 모습을 담았고, 국문장편소설들에서는 대가족이 사는 실제 집의 형태를 재현하였다.

일과와 노동의 경우에도 실제와 비교적 비슷하지만, 소설에서는 다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소현성록>이나 <완월회맹연>의 배경이 중국이기는 하지만 그 안의 일상은 우리나라의 그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실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가미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고 생각되기는 한다.⁴⁷⁾ 실제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조선 시대에 평민 이하층 여성은 주로 가정 내의 일을 하면서 직조(織造)나 바느질을 하여 가계를 책임지기도 했으며, 양반층 여성은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였고 제사 모시기, 손님 접대하기 등의 일을 하였다고 한다. 제사를 모시는 것은, 조선 초에는 6품 이상은 3대를, 7품 이하는 2대를, 서인(庶人)은 부모만 제사했으나, 중·후기가 되면서 점차 중국의 <주자가례> 따라 4대 봉사가 일반화되었고 평민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부의 경우 기제사와 다례와 시제 포함하면 10회 이상이 되었고, 남편이 양자일 경우 양부모만 제사를 지내도 되었으나, 통상 친부모 제사도 함께 지냈으니 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처럼 결혼한 양반 여성의 경우,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임무였기에 송시열의 <계녀서>, 이덕무의 <사소절> 등 여성 규범서에는 봉제사(奉祭祀) 항목이 반드시 있었다. 또한 손님 접대는 집안의 품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시되었는데, 접대를 제대로 못하면 가문이 정보에서 소외되고 지아비와 자식이 나가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여 부인들이 여자 종들을 지휘하여 음식을 잘 장만하려 했다. 가정 경제의 관리와 운영도 <주자가례>에서는 가장인 남성이 주도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의 부인인 주부(主婦)가 총괄하였는데 토지와 노비 관리가 주된 임무였다. 평민이나 노

47) 이지영, 앞의 논문, 50쪽.

비층 여성은 직접적 생산노동에 참여했는데, 종자 준비나 곡식 심기를 남자와 같이하고 김매기를 주로 하였다고 한다. 포(布)는 쌀과 더불어 화폐 역할을 했고 세금으로도 냈기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양반가 여성 정일당 강씨 같은 이는 생계 유지와 남편의 과거 공부 뒷바라지로 길쌈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⁴⁸⁾

교육이나 독서의 경우에도 실재를 반영한 면이 많은데, 소설에서처럼 학식이 높았던 여성들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17세기의 문인 김창협이 딸 김운이 죽은 뒤 쓴 묘지명을 보면, 그녀가 <주자강목>, <논어>, <상서> 등을 읽는 등 학식이 높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송시열도 정부인 이씨의 행장에서 그녀가 경서와 사기, 시전, 맹자 등의 대의(大義)를 꿰뚫고 있을 만큼 학식이 깊었다고 쓰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경우에도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규범을 익히는 것이 당연하였고, 18,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교육 받아 지적 수준이 높고 치란(治亂)과 고금의 득실을 따질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을 갖춘 여성들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⁴⁹⁾

사소해 보이거나 덧없어 보이는 일상의 시시한 것들이라도 그 구체성의 축적을 통해 전체 세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소설이며 문학인데, 포장되거나 관념화된 현실이 아니라 생생한 열기와 압력을 함께 느끼게 하므로 중요하다.⁵⁰⁾ 앞에서 살핀 것처럼 고전소설들은 이들 소설 속에서 꺾진성을 얻은 현실과 인물의 상황과 감정들 때문에 독자들을 몰입하게 하며 공감하게 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서로 겹쳐 있는 존재론적 공생 관계이기에 감정은 사회

48) 이순규,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저,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49) 황수연, 앞의 논문, 174~176쪽.

50) 오택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 출판부, 1999, 167쪽.

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개개의 감정(emotion)은 사회와 타협하거나 조율하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왔으며 그 시대인들의 감성(affect)⁵¹⁾으로 조직되기 마련이기에, 감정의 확인은 곧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자 자기의 역사화 과정에 대한 반추이다.⁵²⁾

그런데 조선시대처럼 유교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기에 그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사람의 행동은 엄격한 합리성과 계산에 근거하기보다는 기억과 습관, 전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⁵³⁾ 따라서 그들의 일상생활 관련 서술과 묘사를 통해 은근히 드러나는 감정들을 읽어내고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던 감성이나 전통을 알아내는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고전소설은 독자들의 공감과 전파를 생명으로 삼았기에 작품과 독자의 관련이 더욱 긴밀했으므로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기억과 습관, 전통을 통해 당대의 생활문화와 감성을 엿보는 일은 의의가 있다.⁵⁴⁾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고전소설 속 일상생활의 양상과 그 서술효과에 대해

51) '감성(affect)'은 심리적 차원에 한정된 '감정(emotion)' 요소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역사적인 제반 요소가 결합하여 작동하는 움직임과 변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심리학, 철학, 문학, 문화학 등의 분야에서 흔히 '정동(情動, 靜動)' 또는 '정서', '감정', '감성' 등으로 번역된다. 최기숙, 『춘향전을 둘러싼 조선시대 감정 유희』, 최기숙외,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180쪽 참조.

52) 최기숙, 『감정이라는 복잡계, 인문적 신호와 접속하기』, 최기숙외, 『감정의 인문학』, 봄아필, 2014, 17~22쪽.

53) 홍성민, 『취향의 정치학 -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현암사, 19쪽.

54) 한 편의 논문에 허락된 지면의 제한이 있어, 감성을 읽어내는 것까지 자세히 논하지는 못했으므로 후고를 기약한다.

논하였다. 의식주생활의 경우는 작가의 주관적 진술보다 당대의 실생활을 그대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의복과 집과 방의 모습, 술과 안주를 위주로 한 음식의 모습 등은 현실감 있게 그 장면을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식생활에 대한 정보는 소략한데 이는 많이 먹는 것을 탐욕스럽거나 사치스럽다고 생각해서였던 듯하다. 판소리에서만 안주, 술 등을 다양하게 열거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고, 요리를 하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 주생활에 대해서는 집과 방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었는데 판소리에서는 다소 과장되고 화려하게 열거함으로써 자신들이 소망하는 집의 모습을 담았고, 국문장편소설들에서는 대가족이 사는 실제 집의 형태를 재현하였다. 일과(日課)와 노동은 실제와 비슷했지만, 소설에서는 다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통해서서는 사대부 남성과 여성의 일과, 사대부 여성의 노동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판소리나 세태소설을 통해서서는 가난한 양반의 노동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독서와 교육도 실제와 비슷한 면이 많았지만 주로 상층인들의 일상생활에 해당하므로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많이 서술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연구를 통해 고전소설 유형 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 영웅소설, 애정소설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서술이 적었으며, 그 서술도 주로 서민이나 하층민의 삶이 조명되었다. 이들 단편소설들은 주로 굽직한 사건 위주의 빠른 진행을 보이기에 일상생활을 세세히 조명하기보다는 열거에 그친 반면,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은 사소한 사건들도 인물의 구체적 행위나 묘사를 동반하여 길게 서술하기에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명했다. 이를 통해 상층인들의 일과와 노동, 독서와 교육, 의식주생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고전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서 계승되어 온 작품들이기에 우리의 생활, 사상, 미학, 감정, 가치관 등

이 모두 담겨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전문학의 깊이와 품격, 고전 작가들의 사유와 미의식, 그 안에 녹아 있는 선인들의 삶과 감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문학 전공자나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이나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이를 통한 교양 교육의 질적 향상,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 문화·예술적 안목과 창의력 함양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독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문학이 곧 삶은 아니지만, 삶의 국면들이 다양하게 반영, 굴절되면서 당대인들의 생활을 보여준다. 특히 고전소설들은 당대의 풍속이나 생활과 같은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적인 기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다채롭고도 정직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짙진 현실감을 확보하기도 하고, 당대인들의 감정과 소망을 담았기에 그 시대인들의 감성을 보여준다는 의의도 있다.

지금까지의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에 대한 작품론과 작가론, 작품들의 관계 양상이나 하위 유형을 묶어서 사적인 변모 양상을 살피고 향유층의 의식 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최근에는 창작 방식이나 서술방식, 미학이나 표현 등에 대한 세밀한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들은 고전소설 분야의 연구진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체의 평생교육이나 교양교육, 중학교 교육의 현장에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전소설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또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논함으로써 현대의 일반 독자들도 고전소설을 더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를 살고 있지만 고전문학을 통해 선인들의 삶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적 가치관과 정체성, 선인들의 삶과 생각, 말과 글, 인간관계, 감성

등을 알려주어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숙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문학교육을 통해 그 작품이 놓여 있던 사회·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여 그것이 산출된 당대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체득하게 한다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은 구체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상과 감정을 다루기에 이를 통하여 독자는 깨달음과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문학과 삶의 긴밀한 연관, 작자와 독자의 은밀한 교감과 소통 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와 감성을 느끼게도 되는 것이다. 고전소설 속 인물들의 일상생활은 구체적이고도 다양하며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현대인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명주보월빙』 1~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김문희·조용호·정선희·진진아·허순우·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 신해진 역주, 『이춘풍전』,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328~359쪽.
- 신해진 역주, 『사씨남정기』,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9~105.
- 신해진 역주, 『옥난빙』,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107~215쪽.
- 심경호 역주, 『만복사저포기』,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5, 15~127쪽.
- 이상구 역주,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03, 116~275쪽.
- 이상구 역주, 『주생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03, 40~245쪽.
- 장시광 역주, 『방한림전』, 한국학술정보, 2006, 1~265쪽.
-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 한국고전문학전집 1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3, 1~510쪽.
- 정병헌 외 편, 『쉽게 풀어쓴 판소리 열두 바탕』, 민속원, 2011, 1~545쪽.
- 정하영 역주, 『심청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1~401쪽.
-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 2010.
- 한길연·김지영·정언학 역주, 『유씨삼대록』 1~4권, 소명출판, 2010.
- 강성숙,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2013, 7~42쪽.
-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 18~19세기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4, 2012, 85~117쪽.
- 김미현·최재남·정선희 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사전 4 - 공간과 사물』, 보고서, 2013, 355~411쪽.
- 류정일, 『조선후기 여성 생활의 규범화-탈규범화 관계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28, 2012, 331~357쪽.
- 박경주,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 - 여성들의 노동과 놀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2012, 151~182쪽.
- 박명희, 『한국의 생활문화』, 교문사, 2003, 1~230쪽.

- 실시학사연구회 역, 『이옥전집』 2권, 소명출판, 2001, 1~528쪽.
- 알프 튀트케 외, 나중석 외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1~482쪽.
- 오타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 출판부, 1999, 1~230쪽.
- 이순규,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저,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191~224쪽.
-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33~56쪽.
-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22, 2010, 83~121쪽.
- 정선희,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공주/군주 형상화와 그 의미 - 부부관계 속 여성의 감정과 반응 양상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2015, 183~216쪽.
- 정충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일상성』, 『국문학연구』 14, 2006, 87~104쪽.
- 조성진, 『고전시가에 나타난 음식 이념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32, 2015, 221~254쪽.
-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2006, 49~89쪽.
- 최기숙, 『감정이러는 복잡계, 인문적 신호와 접속하기』, 최기숙 외, 『감정의 인문학』, 봄아필, 2014, 17~22쪽.
- 최기숙, 『춘향전을 둘러싼 조선시대 감정 유희』, 최기숙 외,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167~204쪽.
- 최윤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일상 문화의 풍경』, 『한국고전문학회 277차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6. 8.
-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6, 1~180쪽.
-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2, 1~341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서사’의 미학 -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125~149쪽.
-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1~278쪽.
-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편, 『감성담론의 세 층위』, 경인문화사, 2010, 1~322쪽.
- 홍성민, 『취향의 정치학 -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현암사, 2012, 1~212쪽.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 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161~192쪽.

허원기, 『『곤법』에 나타난 여성 독서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231~257쪽.

ABSTRACT

Daily life examined in Korean Classical Novels
and its effects of description

Jeung, Sun-hee

This paper examines daily life in Korean classical novels. Korean classical literature contains Koreans' life, ideologies, aesthetics, emotion and values. Thus, we should not lose the depth and dignity of classical literature, reasoning and aesthetic senses of authors of classical novels, and life and emotion of ancestors found in classical literature. Therefore, classical novels can be the best reading texts for development of knowledge of not only literature majors and scholars but also regular adults and students, and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liberal education, reflective introspection about own life, and development of cultural and artistic discrimination and creativity. In addition, there will be effects of understanding lives of ancestors better by experiencing lives of ancestors indirectly through classical novels. Moreover, classical novels will make readers deliberate on essence of life by teaching Korean values and identity, thoughts, words and writing of ancestors, and relationships.

Key Words living culture, daily life, Korean Classical Novels, daily work, labor, reading, education, food · clothing and shelter

논문투고일 : 2016. 9.27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